

# 괌 KAL기 추락사건

## 미국정부에 재판준비중인 김동민 변호사

1997년 8월 6일 1시 42분. 대한항공 점보 제트 801 보잉 747기는 서울에서 출발하여 나미즈 언덕 괌 중심지에 떨어졌다.

보잉 승객 254명 가운데 23명은 선원, 255명은 성인, 3아동, 3아기 중 15명은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졌다. 비행기는 네동강으로 부서졌다.

탐승객중 대부분의 한인 승객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왕복여행 손님들이었다. 그로 인해 바르사바 조약에 따라 KAL기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하는 방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며 특히 중요한 점은 미국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한인들의 가슴에 잊혀지지 않고 있는 사건중의 하나인 1983년도 KAL기 추락 사건과 이번 괌 추락사건은 큰 차이점이 있다. 미국에서는 항공기 사고가 났을 때 바르사바 조약을 중요시 여긴다.

그 바르사바 조약 중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점은 그 조약에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미국내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법을 이해하려면 이 법이 왜 나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비행기 납치를 대비하여 만약 미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국 비행기가 미국의 영토를 지나다가 발생했을 때를 걱정하고 있다. 그 때에 간혹 피해자들이 미국의 인권 존중화된 판례법에 의하여 미국내에서 소송하기를 원하지만 미국내에서는 그러한 사건을 법정에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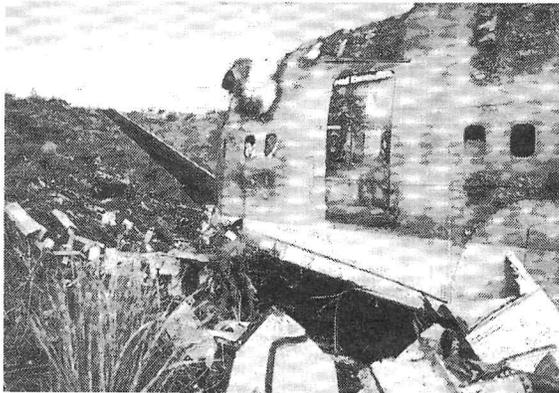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바르사바 조항에서는 미국에서 떠난 비행기나 혹은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혹은 미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과 외국인들 중에 편도로 미국에 도착하려 했던 사람들에 한하여 법원 자체에서 권위를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1983년도에 일어난 사건 중 부분적으로는 왕복 비행기 티켓을 산 사람들에 한하여 그들이 외국으로 돌아갈 예정날짜를 잡지 않았었다라도 만약 왕복 티켓을 사서 미국을 거쳐 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위의 조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그러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왕복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여 한국에서 괌에 들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으므로 미국에서 소송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만 이 사건이 다른 사건과의 또다른 점은 미정부측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자료의 정보가 증명해주는 것은 비행기 착륙 시 비행기장 관제탑에서도 문제가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측과 컴퓨터 에러상 발생한 미국회사 가해자측들은 어느국가에서 소송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즉 피해자들은 크게 나누어 대한항공과 미연방측에 소송을 해야 할텐데 바르사바 조약에 의하여 대한항공을 소송한다면 미연방의 책임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미연방법에 보면 상해, 보상법

에 의하면 미국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미국에서 하게 되어 있다.

그 첫번째 단계로 제일먼저 공청회를 반드시 미국 주에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다면 미연방 법원을 상대로 한인 피해자의 소송이 시작되었을때 미정부측은 다시 대한항공을 상대로 삼자소송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상해법에 의하여 1%의 과실이 있는 자는 0%의 피해자에게 100%에 관한 경제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다. 즉 40살의 사망피해자를 생각해 볼때 그가 30년이 더 남은 여생에 매년 수입이 10만달러라고 생각해 볼때 미정부측은 최소한 300만불을 보상해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미정부측은 책임을 사고 주 원인인 대한항공과 퍼센테이지를 나누려 할 것이다. 한인 최초의 사고, 상해 변호



사인 김동민 변호사는 이 사건을 가장 최대한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인 피해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제대로 미연방 법원에 제

출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한인 미국 변호사와 항공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오랜 경험있는 미국 변호사, 그의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변호사 그리고 최대한으로 피해자들의 입장과 상속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한국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입각하여 한국 변호사로서 처음으로 피해자를 대표하여 미국에서 미국정부와 KAL기를 상대로 재판준비중에 있다. NEWS FOCUS